

보도자료

2012년 4월 20일(금)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김정렬 과장(☎ 750-2730)
방송통신융합실 스마트미래전략팀 양청삼 팀장(☎ 750-2170)
인터넷정책과 한정원 사무관(☎ 750-2745) jwhan@kcc.go.kr
스마트미래전략팀 김장호 사무관(☎ 750-2173) kjh54@kcc.go.kr

방통위, 「UX / UI 전문가 포럼」 출범

-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UX/UI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논의하는 場 열려 -

최근 정보통신과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스마트 기기·플랫폼 경쟁의 핵심요소로 이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과 이용자 환경(UI, User Interface)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UX/UI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UX/UI 전문가 포럼」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4월 20일(금) 오후 4시에 미래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UX/UI 전문가 포럼」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UX/UI 기술은 2007년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 급격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ICT 기기와 서비스의 가치가 하드웨어의 성능 중심에서 사용자의 경험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UX/UI 산업에서는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동작인식 등이 경쟁의 핵심 영역이며, 애플(아이폰 4S에 지능형 음성인식기능 ‘Siri’ 탑재), 구글(64개 언어 자동번역서비스 제공), MS(동작인식 게임기 ‘Kinect’ 출시)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혁신적인 UX를 적용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평균 30%이상 고속으로 성장하는 UX/U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사업자들 역시 대형 제조사, 포털사,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등을 중심으로 UX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UX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 구글, MS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UX/UI 생태계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소벤처의 경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UX는 촉각,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며, 창의와 기술력에 바탕을 둔 중소벤처들이 기술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은 UX 전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반 기술도 취약한 형편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UX의 요소는 산업디자인, 산업공학, 전산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 여러 학제에 분포되어 있어 UX/U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제 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는 「UX/UI 전문가 포럼」은 디자인, 사회과학, 공학, 인지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5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넓은 스펙트럼 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집하는場이 될 예정이다.

포럼 의장은 이만재 서울대 융합기술원 교수가 맡았으며, 부의장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UX 담당 정지홍 상무와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류한영 교수가 맡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UX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폰, 스마트 TV 시장에서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앞으로 ICT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UX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이 포럼에서 UX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전략들이 도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UX/UI 전문가 포럼」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성명	직위
대학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류한영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윤주현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김현석	교수
	사회과학	성균관대학교 인터렉션사이언스학과	신동희	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최준호	교수
	공학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원	이만재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IT융합연구소	최준균	소장
		KAIST IT융합연구소 미래디바이스팀	정성관	팀장
		송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
		경북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백낙훈	교수
업계	가전	LG전자 UX 혁신디자인연구소	홍사윤	상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UX담당	정지홍	상무
		삼성디자인스쿨 UX 디자인교육팀	오경순	교수
	이통사	KT 중앙연구소·종합기술원	김성우	매니저
	포털	NHN UXD 센터 Lab	이윤희	Lab장
		SK커뮤니케이션즈 UXD 센터	한명수	이사
	SI업체	LG CNS 솔루션사업본부 UX 기획팀	송석례	부장
	컨설팅	바이널	박영민	대표
		씽크유저(ThinkUser)	오창영	대표
	웹 에이전시	PCN	송광현	대표
		이모션	정주형	대표
연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	차세대컴퓨팅연구부	이전우	부장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팀	황대환	팀장
		SW 미래기획연구팀	원종호	팀장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김정렬	인터넷정책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실		양청삼	스마트미래 전략팀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박세영	융합기술 PM
협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김진수	회장